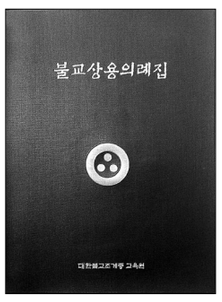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 '상용의례집' 개정판 발간

2016년 공포된 표준 우리말 의식 총망라



조계종의 표준 우리말 의례집이 새롭게 개정됐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지난 2013년 발간한 승가교육 교재인 〈불교상용의례집 · 오른쪽 사진〉 전면 수정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개정판에는 종단서 표준 우리말로 공포한 '반야심경', '칠정례'(2012년), '천수경'(2013년)에 이어 올해 2016년 7월 12일자로 공포된 '행선축원' '신중예경' '아침종송' '저녁종송' '삼귀의' '사홍서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개정판은 종단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과 염불교육지도위원장 화암 스님이 직접 감수를 진행했으며, 기존 오탈자 등 감수를 새로이 했다.

또한 교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왼쪽 면을 '한문본'으로 오른쪽 면을 '한글본'으로 편집했으며, 기본 염불의식인 예경 · 불공 · 천도 · 생활의례를 수록했다.

교육원은 "새롭게 개정된 〈불교상용의례집〉은 승가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스님과 신도 모두의 일상 기도를 위한 종단 표준 의례집"이라며 "스님들의 의례와 불자들의 신행에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오는 10월 27일 통도사와 금산사에서 열리는 '우리말 염불의례 연수교육'에서는 〈불교상용의례집〉 개정판이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02)730-6390 **신성민 기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통해 품격 높인다

문화재청, 내년부터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내년부터 전국 25개 사찰의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문화 사업들이 시작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상품 프로그램인 '2017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25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첫 선을 보일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한국의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에 대한 대중화 · 세계화 일환으로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최근 주목받고 있는 MICE 사업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MICE 사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아우르는 서비스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조계종이 추진하는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유산에 성공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통도사 · 법주사 등 25곳 선정돼
인문적 정신문화 세계화 일환
MICE 활용 · 세계유산 등재 기반

하는 것도 이번 사업의 기획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지난 8~9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된 43건의 사업 중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발전성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12개 시 · 도 2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속리산 법주사의 史視樂樂-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오대산 월정사의 오대자락, 천 년의 인고를 품다 △지리산 실상사의 실상사, 마을과 함께한 천년의 향기를 느끼다 △도솔산 선운사의 보은염 이운행사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갚은 소금이야기'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으로 국내 곳곳의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문화재청이 새롭게 마련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하여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지역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 지역 향토문화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내년부터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까지 분리 · 운영함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10월 19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2017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상 지자체, 사찰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4년 멸빈자 사면, 다시 종회서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전반기 활동결과를 정리했다.

종헌종법특위는 5년 만에 총 24건의 종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상반기 중앙종회의 최대 관심사인 1994년 멸빈자 사면과 관련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은 끝내 성안되지 못했다.

중앙종회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사부대중위원회(사부대중위)는 지난 6월 이전까지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했지만, 결과보고가 지연되면서 지난 10월 14일에 결과보고가 제출됐다. 이날 특위는 11월 정기회에서 전반기 특위가 해산하는 만큼 후반기 종헌종법특위에 입법제안 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종회에서는 각종 인사건이 올라올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상근 이사에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이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8일 임기 만료된 동국대학교 감사에 덕문 스님(전 동화사 주지, 현 감사)과 태원 스님(중앙종회의원)을 복수추천됐다.

이와 함께 정기회에서는 중앙종회 하반기 종회의장 선출이 진행된다. 하마평에는 중앙승가대학 총장 원행 스님이 오르고 있다. **김주일 기자**

前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원적

10월 15일 오전 6시 동탄 용화사서… 17일 다비식 엄수


용화사서 진행된 정호 스님 다비식.

용주사 前 주지 정호 스님이 10월 15일 오전 6시 동탄 용화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스님의 다비식은 17일 엄수됐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호 스님은 1973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5년 보은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법보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이다.

지난 2006년 용주사 주지로 임명돼 용주사를 효행 원찰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 용주사 주지로 재임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6일 조문했다. **신성민 기자**

"GBC 건립 반대 전국사찰 동참 확산"

10월 17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결의문 채택

서울시장 참회 및 절차 중단 촉구
강행시 주민소환운동 범불교 전개
신도시 포교 등 종단 현황도 보고


교구본사주지회의는 10월 17일 서울 강남 봉은사서 사상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봉은사 인근 현대차 GBC건립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초고속 인허가 절차를 서울시에 밟고 있는 현대차의 GBC건설을 막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초고층인 GBC건설 시 일조량 감소로 인근 봉은사 문화재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문화재 환경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건립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자승)는 10월 17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봉은사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개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싱크홀, 소음, 진동 등 사찰과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는 졸속이자 재벌특혜로 종단은 수행과 전통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현대차 GBC건설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허가 절차 중단 및 참회 △강행시 주민소환운동의 범불교적 전개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활동을 위한 활동 동참 등을 결의했다.

특히 주지 스님들은 "불자와 국민들에게 헌법파괴, 전통문화 파괴 실상을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며 강행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범불교적 운동으로 전개하겠다"며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전통문화 창달과 계승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보고, 신도시 사찰 건립 추진 보고, 성보국외환수 추진 현황 보고, 10 · 27법난 기념관 건립 현황 보고 등도 함께 진행됐다.

신도시 사찰 건립에는 세종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사찰 건립계획이 공개됐다. 세종신도시 사찰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전월산 지역에 약 4840평 규모의 부지가 마련된 상태다. 계약금은 132억여원으로 현재 3회 분할 납부됐다.

이 곳에는 사찰과 함께 한국불교문화홍보체험관도 건립된다. 홍보체험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공사가 진행된다. 총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7년 설계 및 시공착수, 2018년 시공,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홍보체험관 건립 추진위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례신도시 사찰은 현재 하남시 감이동 호국사자사 위치인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며 약 3025평 규모다. 계약금은 249억여원으로 현재 10회 분할 중 4회 납부된 상태다. 위례신도시 사찰에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성보문화재연구원)가 건립된다. 위례신도시 사찰에 들어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현재 건축사무소에서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다. 총 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 상반기 착공식을 목표로 11월까지 사찰 기본계획, 12월까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등 · 정광 · 정신 스님 직지사 주지 입후보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선거에 법등 · 정광 · 정신 스님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직지사 교구선관위는 10월 18일 주지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조계종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과 직지사 前 부주지 정광 스님, 현 부주지 정신 스님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직지사 주지 선거는 법등 스님의 단독 입후보로 추대 형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됐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직지사 운영위원회(위원장 법등)가 9월 24일 법등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직지사는 주지 선출 시 운영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왔다.

법등 스님은 1961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으며 서울 조계사 주지, 구미 도리사 주지,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광 스님은 1974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으며 상락사와 북장사 주지, 직지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정신 스님은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으며, 직지사 총무국장, 부주지, 교구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0월 28일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10월 25일 3명의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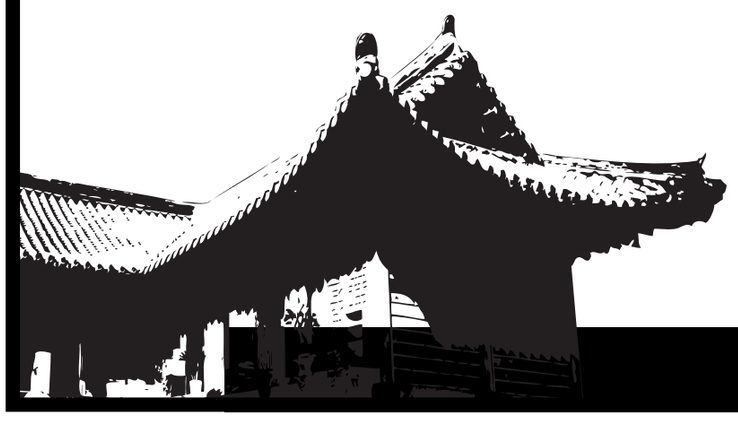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